# 활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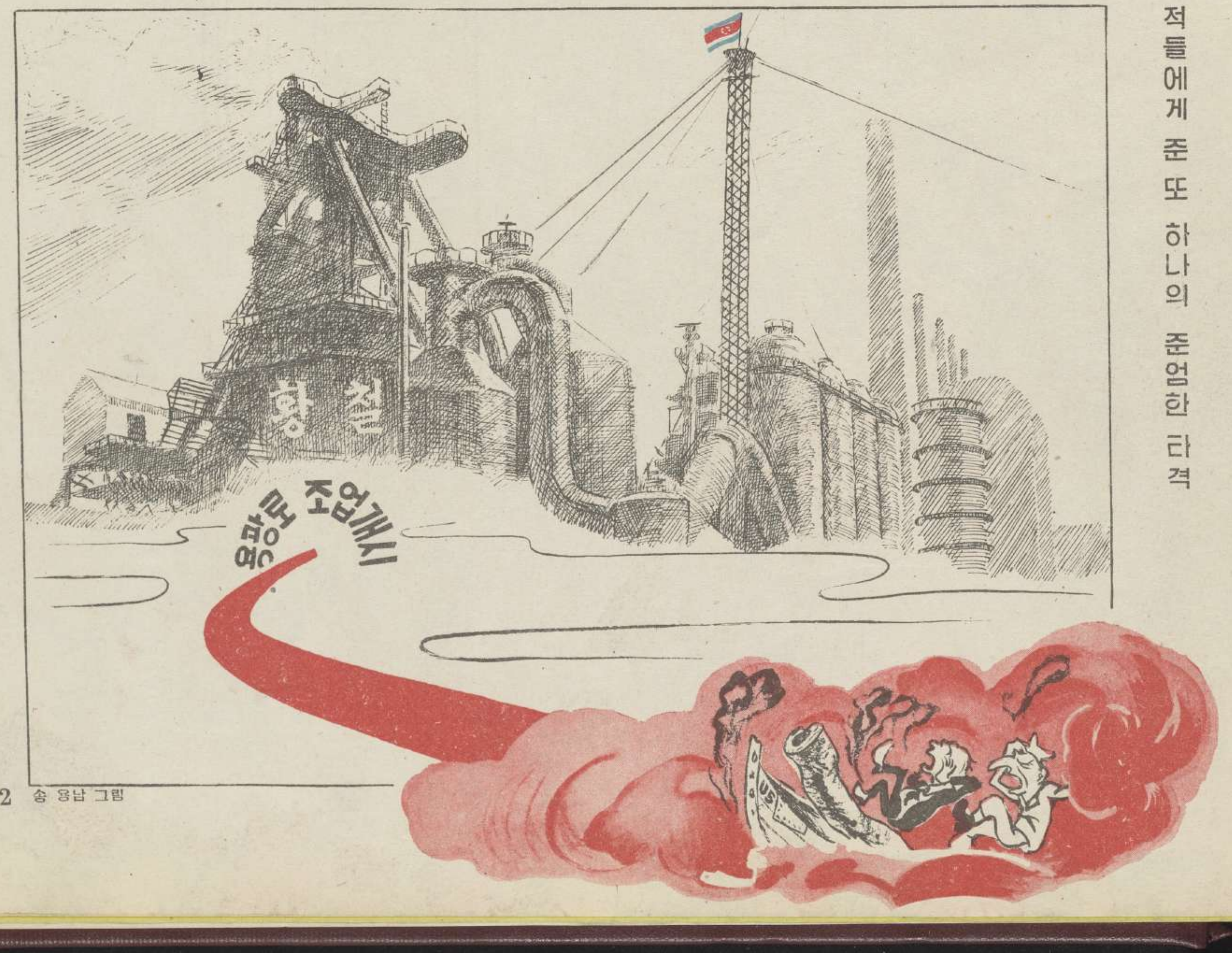
6월호 1958년 (91)

3 -MAY 26
Copy ___ 1959

할아버지—우리 농촌에서도 위생 문화 사업이 한창이란다.

백 인균 그림

백 인균




적들에게 준 또 하나의 준엄한 타격

송 용남 그림





# 찢어진 상장

신 흥 순

최근 남조선 경찰에서는 지난번 《민의원 선거》시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경찰들에 대한 론공 행사가 있었다.

이 《특출한 공훈》이란 다름 아닌 폭압과 날조로서 진행된 협잡 선거에서 가장 란폭한 악행을 감행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궁지에 빠진 리 승만 도배들은 《4대 민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든지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자기들의 졸개들로 채우려고 갖인 발악을 다 하였다.

처음에는 아주 점잖을 빼고 《서정 쇄신》이니 《자유당의 선거 공약 3장》이니 하고 폭압, 포섭, 무마, 회유와 매수 정책으로 시작하더니 립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점차 자진 가락으로 재우치는데 공갈 협박으로 올러메고, 주먹다짐으로 치고 때리고, 몽둥이로 까고, 총칼로 란투극을 연출하는 등…

그야말로 폭압 선거의 본성을 적라라하게 들어 내였다.

이와 같이 여당과 야당 간에 자리 다툼으로 하여 서로 물고 뜯고 차고 때리고 골이 터지도록 싸우는 것쯤은 무법천지인 남조선 사회에서 용혹무괴한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그 개싸움통에 남조선 인민들이 피해를 당한 데 대하여는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리 승만 도배는 자기 계렬을 반대하는 기세를 억누르기 위하여 선거를 계기로 삼엄한 초 비상 경계망을 펼쳐 놓고 《반 국가적 행동 단속》이라는 구실 아래 무장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서울 시내에서만도 무려 2만여명의 무고한 인민을 다량 검거 투옥하였던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 괴뢰 경찰에서는 이러한 검거 선풍에서 《솜씨》를 보인 경관들에게 시상을 한 것이다.

금번 시상식에서 《명성》을 떨친 자는 서울에서도 악명 높은 종로 경찰서의 채 형사이다.

그는 성까지 채가가 돼서 사람을 잘 채 가는지 선거 기간에만 단독 538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하여 최고 기록을 올렸다.

그리하여 채가는 단연 《수훈'갑》으로서 금줄이 번득이는 상장에 상금과 상품도 두둑이 탔다.

아닌게 아니라 선거 기간에 채 형사는 밤낮 없이 돌아쳤다.

자유당 출신 립후보자에게 반대 투표를 할직한 의심에 오른 사람은 부인네고 로인네고 깡그리 《요시찰인 명부》에 적어 들고 돌아치면서 벼라별 생트집으로 죄명을 씌워 닥치는 대로 엮어 가는데 그 하는 짓이 가관이다.

《에—이 선거구에 립후보 하신 리 선생으로 말하면…》채 형사는 공회 당에 모인 동리 사람들을 한번 둘러 보고 나서

《이분은 자유당 간부로서 정치에 경험이 풍부할 뿐외라 지식 있고 돈 많은 그야말로 량자 겸전하신 분이니 만큼 다 같이 찬성 투표하시되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이 서약서에다 미리 도장을 찍으란 말요! 알겠소?》하면서 서약서를 내준다.

《여보시우 선거구 익은 거구 유권자가 투표를 했으면 그만이지 도장은 내다버릴 무슨놈의 도장이란 말요?》

박 로인이 운을 떼자 모두들 《옳쇠다!》하고 장내는 웅성대였다.

그리하여 채가는 단꺼번에 20 여명의 주민을 엮어 갔다.

그리고 어데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여봇! 이 아이는 누구야?》

《우리 손자외다. 왜 그리우?》

《음 손자? 그럼 경찰서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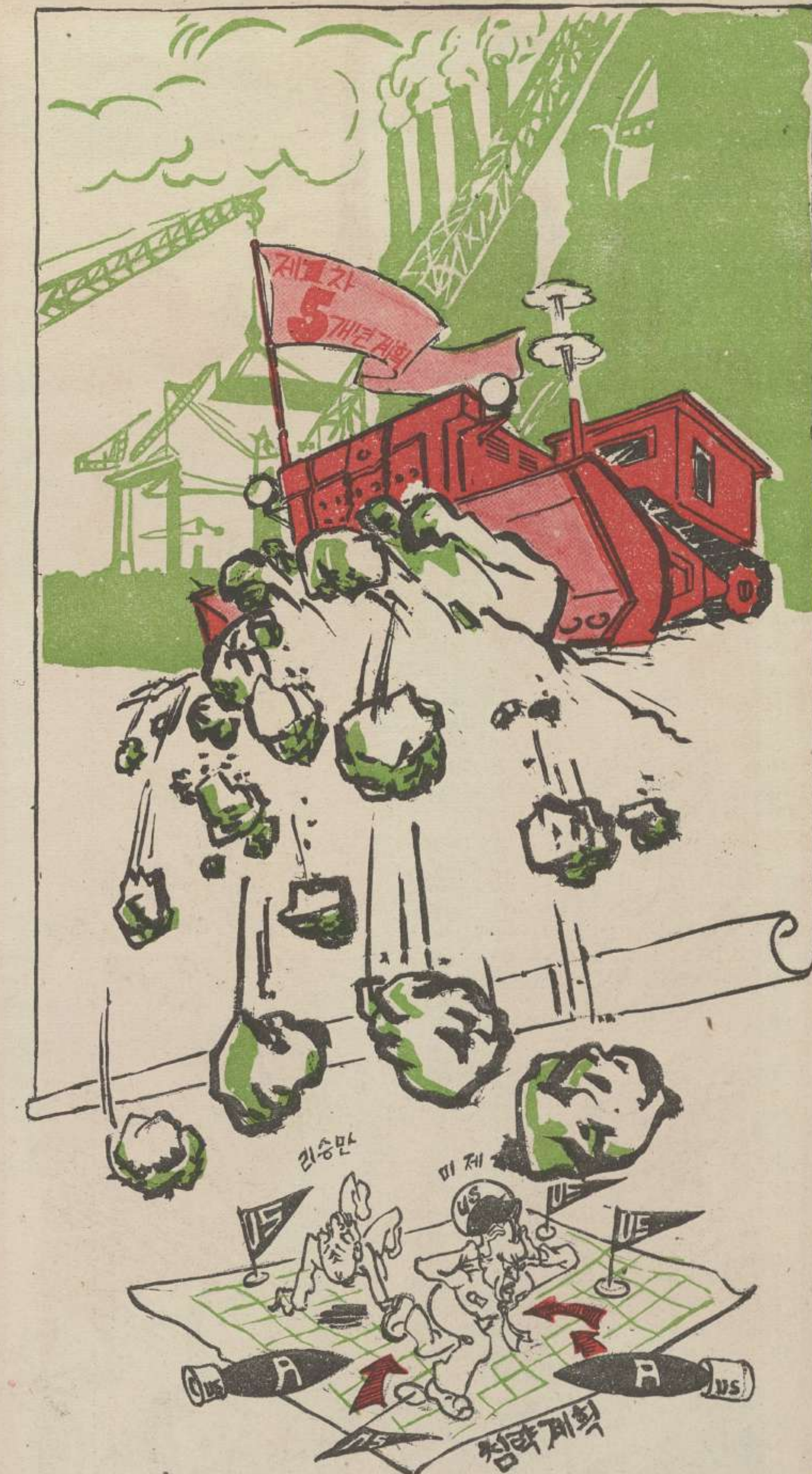
《아니 경찰서엔 왜요?》

《이 어린애 가슴에다 왜 이따우를 달아 줬어》

《아니 장난'감 훈장을 단게 뭐 잘못 된거 있소?》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이런 훈장을 함부로 패용한 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잡아 가기루 됐어!》

《뭐요? 이거야 애들 장난'감이 아뇨?》




조 명식 그림

《장난'감이구 뭐구 안 된단 말야! 어서 갓!》

그리하여 김 로인도 끌리여 갔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다.

《손 들엇!》

《아니 왜 이러슈? 뭐이 수상해서 남의 호주머닐 뒤지며 야단이요?》

《이것 봐! 이따우 칼을 누가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그랬어? 엉?》

《여보 이런 조고마한 손칼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댕기는게 아니요?》

《경찰의 허가 없이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한 자는 무조건 처벌이야! 알았어?》

《아니 여보! 이건 사과 깍아 먹는 손칼인데 흉기는 무슨 흉기란 말요?》

《이걸루 모가질 찌르면 죽지 않을가? 잔소리 말고 어서 갓!》

박 령감도 잡혀 갔다.

사람 채 가는데 이골이 난 채가는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게 생트집으로 죄명을 들씌워 엮어 간 공로로 하여 칭찬 받고, 표창 받고 상금까지 받고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질 지경으로 기뻐하면서 그날'밤 이슥하도록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비틀걸음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새벽 동네 사람들은 얼굴에 멍이 들어 행길 바닥에 실신 상태가 되어 나가 넘어진 채가와 그 옆에 세 조박 네 조박으로 찢어진 상장을 발견하였다.

사실은 그것이 상장인 것이 아니라 저주와 격분에 찬 인민들의 원한장인 것이다.

조쏘 친선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열매
질안 폭포는 전야로 흐른다!

리 영춘 그림

# 절량

오 흥 택

이런 옛말이 있다.

한 부자가 동네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정 없으면 수수밥이라도 해먹을 노릇이지 않아서 굶고 있다니 바보들이야》

수수쌀이라도 있으면 무엇때문에 굶고 있겠는가? 이 부자는 사람들 속에서 우화적 존재로 된다.

이것은 옛 이야기이니 웃어 버릴 수도 있지만 오늘 남조선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으니 기막힌 노릇이 아닌가.

미국《국제 협조처》《사절단》이란 어중이 떠들이 그래도 입과 눈이 있노라고 남조선 식량 사정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들은 남조선에서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최선의 실천적 대책》이 《남조선 사람들에게 쌀을 더 적게 먹이는데》 있다고 했다.

과연 《현명한 대책》이다. 쌀을 적게 먹는 것보다 굶고 있으면 쌀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역시 이들도 위장을 가지고 있는 도깨비들이라 전혀 먹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보리와 밀을 더 많이 먹고… 남조선산의 쌀은 대외 시장에 수출》하라고 했다.

이 흉물들의 배'속은 가히 알만하다.

작년 추수 직후에 70 만을 헤아리던 절량 농가가 금년 3월에 벌써 300 만을 헤아리게 된 기아 선풍의 도가니 속에서 한몫 보자는 검은 배'속이다.

사람들이 굶어서 쓸어지며 산과 들에 나무껍질과 풀뿌리를 뜯으려 헤매는 틈을 타서 썩은 보리와 밀은 팔아 먹고 삼남'벌의 기름이 도는 쌀을 도적배로 실어다가 팔아 먹자는 수작이다.

조선 사람이야 굶건 말건, 죽건 살건 피 묻은 딸라 주머니만 불려 보려는 침략자들의 본성을 여실히 내어 내 놓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 시기에 수 십년을 두고 쌀의 수출지대였던 남조선! 오늘은 미국의 썩은 보리와 밀을 수입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무리 죽엄을 당할 처지로 만든 략탈자들이 이 처지를 악용하여 야욕을 계속 무제한하게 채우려고 이'발을 들어대니 이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는가.

굶주린 창자를 끌어 안고 살벌의 거리에서 헤매는 우리의 동포들은 그 얼마나 되는가 풀뿌리를 캐다가 산마루턱에서 쓰러진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그 얼마나 되는가, 밥 달라는 어린 것의 울음을 달랠 길 없이 애태우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되는가. 남부녀대 살'길을 찾아 정처 모르게 고향을 등지는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는 얼마나 되는가.

립도 선매요, 청도 선매요 하고 아직 푸른 곡식을 밭에 세운채 개'값으로 팔던 이야기는 몇 해 전 일이고 뿌린 씨앗이 싹도 나기 전에 팔아버리는 남조선—

이런 판국에 또《쌀을 적게 먹으라》고 강요하니 이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미제의 주구 리 승만은 벌써 1947년에 조선 사람은 쌀을 많이 먹어 탈이라고 뇌까리면서 고기와 실과를 먹으라고 했으니 강도의 앞잡이 개다운 지꺼림이다. 쌀 한되박 없어 며칠채 굶은 사람에게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니 쌀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 미제 강도나 다를 것이 없다.

략탈자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량 문제가 해결될 길은 없다.



탄압하면 탄압 할수록

서울로부터의 세계 통신에 의하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서울 시내에서만도 11,328명의 시민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리 영춘 그림

# 체불은 체불이고 체납은 체납

신 흥 순

세무서장은 도 회의에서 돌아오는 즉시로 부하 직원들을 모아 놓고 금번 실시되는《체납 세금 완납 주간》의 중요성을 재삼재사 강조하였다.

《예—이번 주간을 계기로 일체 체납된 세금을 깡그리 받아 들이되 만약시 세금을 못내는 집은 불문곡직하고 사정 볼 것 없이 인양 차압을 해서 솥이구 가마구 잡아 빼 내란 말야!》

이 인양 차압이란 것은 차압 중에도 가장 악랄한 방법의 하나이다. 보통 차압은 쌀독이나 의장 같은 가장집물에 붉은 딱지를 붙여 놓고 다만 며칠간이라도 돈을 마련할 여유를 주는겐데 이 인양 차압은 장사'군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직석에서 당장 팔아 넘기는 것이다.

《이번 세금 완납 주간으로 말하면 국가 재정 운영상 중차대한 일이니만치 만일 자기 담당 구역 내의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때는 리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됐으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완납하겠다는 서약서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땐 면직시켜도 좋다는 사직서를 한장씩 제출허란 말야!》

사실은 도 재정국 회의에서 세무서장 자신이 사직원서를 미리 써 놓고 세금 완납을 다짐하고 왔던 것이다.

세금 독려반들은 그날로 각각 담당 부락으로 쫘악 퍼져 나갔다. 특히 탄광 부락에는 세금 받는데 이골이 났다는 리가를 파견하였다.

《여보! 쥔 있어?》

세무원 리가는 다짜고짜로 문을 열어 제낀다.

《예, 뉘시우?》

몇끼나 굶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은 령감이 나온다.

《세금은 어떻게 됐어?》

《예, 아직 마련이 못됐습니다.》

《못돼?》

《예, 광산에서 월급을 주어야죠. 벌써 석달 동안 돈 한푼 구경을 못한걸입쇼, 오늘 준다, 래일 준다 끌어만 오는데 우린 지금 당장 끼니가 없어 굶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남조선엔 임금 체불이 보통지사로 되여 있다.《대한 석탄 공사》산하 각 탄광을 비롯하여 교통부 소관, 내무부 소관의 조업원들에 대한 로임 체불이 무려 수십 여억환이며 또는 경남 밀양에 있는《한국 모직 공장》심지어 국민 학교 교원들의 봉급을 몇달씩 체불하고 있는 형편이다.

매달 꼬박꼬박 지불을 한다고 하여도 실지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되는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이렇게 3~4개월 내지 7~8개월씩 로임을 체불 당하고 있으니 오늘날 남조선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처지가 과연 어떻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은 그렇게 없다고 앙탈만 할 때가 아니란 말야! 수중에 돈이 없으면 변통이라도 해 내야지!》 세무원은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낼듯이 을러멘다.

《아이구 모두가 다 같은 처진데 꾸긴 어데 가 꿉니까?》

《그럼 못내겠단 말이지? 좋아! 가마라도 당장 뽑아 내야지!》

세무원은 한번 솜씨를 뵈일듯이 부엌으로 들어선다.

개들은 짖어대고 이웃 사람들은 모여 와서 그의 행동을 쏘아 본다.

세무원은 솥 한개를 빼어 들고 낑낑 거리며 나온다.

이때다. 체불 로임을 당장 지불해 내라고 광산측에 항의를 하러 갔던 이곳 로동자들이 우우 몰려 왔다.

《여보! 남의 솥은 왜 빼는 거요?》나이 서른 댓 가량 되여 보이는 로동자 하나이 세무원 앞에 썩 나서며 솥을 잡아 뺏는다.

《엉 나는 세금 받는 세무원이야! 이 집에서 세금을 못 내기때매 인양 차압을 허는 거야!》

《아니 여보! 줘야 할 월급은 몇달씩 안주고 있는 형편에 세금 못 낸다고 솥을 뽑는 법이 어딨소?》

《흥, 로임 체불은 체불이고 세금 체납은 체납이야! 국가 세금은 마땅히 물어야지!》

《뭣이? 체불은 체불이고 체납은 체납이야? 그러니까 줄 돈은 안주어도 괜찮지만 받아 갈 돈만은 내라, 그런 말이지? 여보!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어?》

《옳지 관리한테 대든다! 임마! 어디라구 대 들어?》

세무원은 철껙! 하고 따귀를 때린다.

이것을 본 로동자들은 격분을 참지 못하여 와! 달려 들었다.

그날 저녁 리가는 다리를 절며 세무서장 한테로 와서 그 사연을 일일히 보고하였다.

《힝! 한푼 안남기고 모조리 받아 내겠다고 뽐을 내더니 매를 맞고 쫓겨와? 목아지에 칼이 들어 간대도 받아 낼건 받아 내야지!》

《어이구! 난 죽으면 죽었지 인젠 이 노릇 그만 두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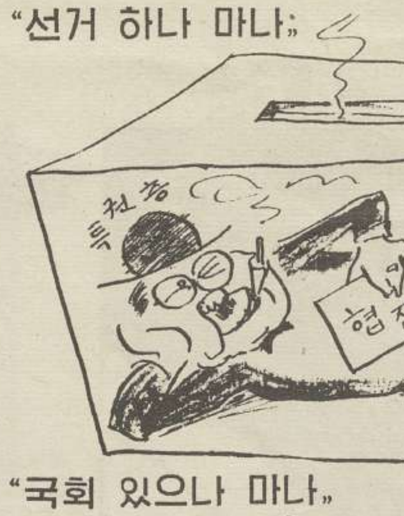
《뭐야? 너 같은 건 당장 목아지다!》

그날'밤 세무서장은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적 저리 뒤척하면서 리가와 같은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그는 벌떡 일어나 서울 중앙청에 있는 자기 형에게 취직 자리를 보아 달라는 편지를 썼다.

## 자리 다툼

박 승히 그림

## "선거 하나 마나"




## "국회 있으나 마나"

백 인균 그림

# 바꿔치기

류 계 환

남조선에서 류행되고 있는 말 중에 《한국의 일 되는 일이 되는 것 없고 안되는 일 안되는 법 없다》는 말이 있다. 영락 없이 될 일도 돈이 없으면 무가내고 안되지만 돈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일도 쉽사리 된다는 말이다.

다음에 이야기는 그중 한 두 개 실례이다.

## 돈이면 그만

금년 봄 마산에서는 기기 묘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밀무역자》가 자기의 《동업자》 한 사람이 형무소에 수감되였다는 말을 듣고 면회를 하러 간 일이 있다. 대합실에서 순번을 기다리던 그는 차례가 돌아와 면회실로 들어 갔다.

—이게 어떻게 된 셈인가?

어둑 컴컴한 면회실 안 철창 저편에 나타난 사람은 그의 《동업자》가 아니라 생면부지의 낯모를 사내였다.

—아니 나는 김 종범이란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바로 그 김 종범이 올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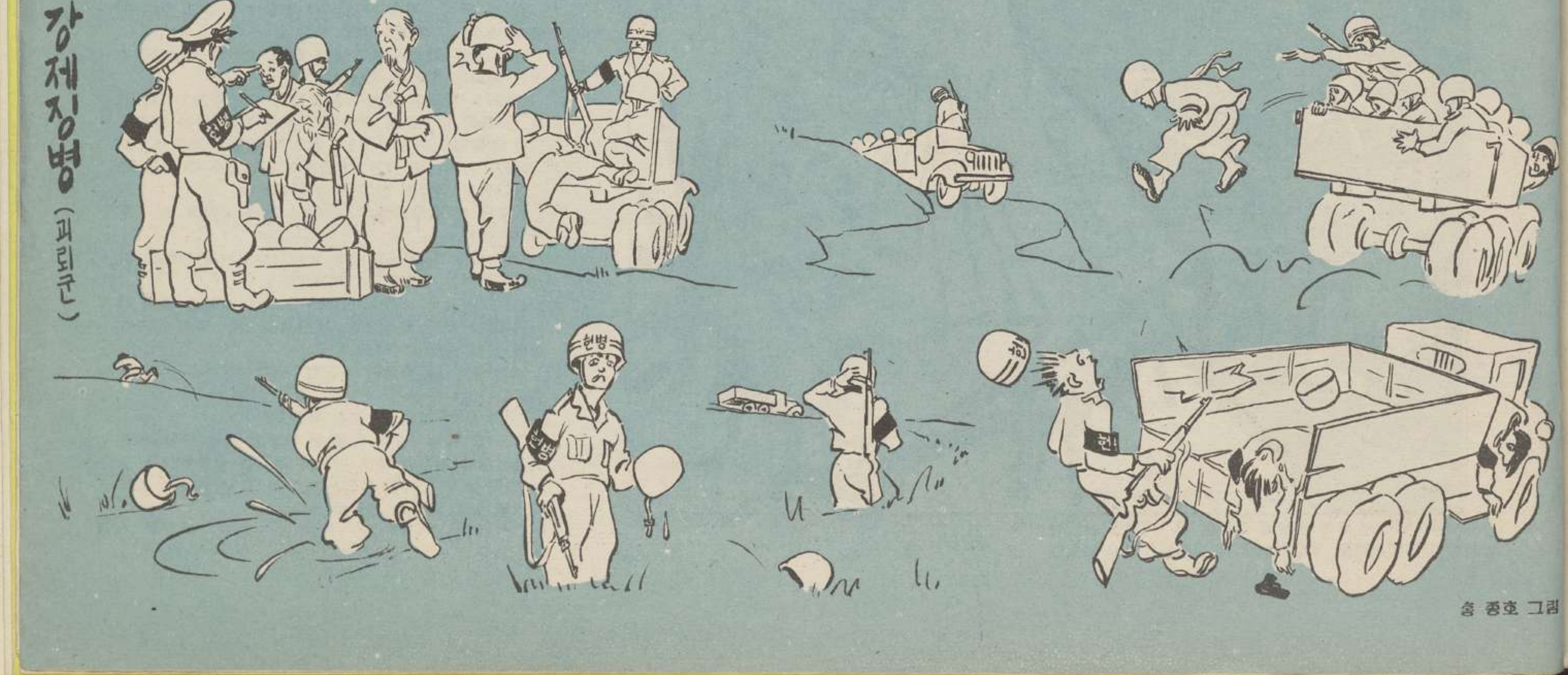
면회자는 어리둥절해서 한참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퍼뜩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수감자와 한두마디 말을 주고 받고는 황급히 면회실을 뛰쳐 나왔다.

수감자는 김 종범이가 아니라 김 종범의 《대리인》이였다. 이렇게만 쓴다면 독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를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곡절이 있다.

김 종범은 이름난 《밀무역자》이다. 그는 밀무역으로 거만의 부를 쌓았다. 그가 밀무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그를 비호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호를 받기 위해서 수입의 적지 않은 몫이 《나으리》들에게 《교제비》로 바쳐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최근 시기에 그는 좀 오산하였다.

그는 한 두 차례 《교제비》를 좀 《절약》해서 썼다. 그것은 년말에 미국 상품이 한꺼번에 쓸어들어 《영업》이 잘 되지 않았던 때문이다. 이것이 결국 그에게 《불행》을 가져 왔다. 《교제비》의 다과로 《의리》를 따지는 경찰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검찰 기관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명색이 《법》이라 그는 재판에 회부되어 10개

## 강제징병 (괴뢰군)




송 종호 그림

## 늘어만 간다

박 승히 그림

세금이 늘고 ····

부채가 늘고 ·····

만행이 늘고 ····

절량이 늘고 ····

반미 감정이 늘었다

월의 징역 언도를 받았다. 그는 통영 경찰서에서 마산 형무소로 이송되게 되였다. 그는 형무소로 넘어가게 되자 경찰을 끼고 각 방면으로 손을 써서, 거리를 떠도는 부랑자(浮浪者) 중에서 그와 용모 및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다.

1958년 1월 17일 김 종범은 고랑을 차고 통영역에서 마산으로 가는 렬차에 올랐다. 그의 뒤에는 순경이 따르고 또 그 뒤를 한 사람의 부랑자가 따랐다.

도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승객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렬차가 마산역에 도착하였을 때 김 종범이가 차고 있던 고랑은 부랑자가 대신 찼고 김 종범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김 종범의 동료가 마산 형무소에서 만난 사람이 이 부랑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 종범이는 돈을 제공 하였고 이 돈은 일정한 비률로 순경과 부랑자에게 분배되었다는 것도 여기서는 더 이야기 하지 말기로 하자.

## 《신체 검사》

《론산 신병 훈련소》에서 있은 일이다. 《군의관》에게서 진찰을 받고 있던 김 인수는 저으기 놀랐다. 그때 그의 바로 옆에서 또 다른 《군의관》에게 한 청년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진행된 간단한 문답 내용이 귀에 익은 것이였기 때문이다. 《군의관》이 묻은 것은 그 청년의 성명과 년령과 주소였다.

—리 영호, 23세, 서울시 돈암동 ××.

돈암동××는 김 인수의 집이 있는 곳이고 더구나 리 영호는 그도 잘 아는 청년이였다. 리 영호는 포목상의 둘째 아들이고 키가 작고 똥똥하고 건강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서 있는 그 청년은 앙상하게 키가 후리후리하고 전신이 창백하고 얼굴에 병색이 돌았다.

—아니 당신이 리 영호라니 리 영호는 내가 잘 아는데…

그 청년은 뜻하지 않은 질문에 이쪽을 돌아 보더니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군의관》도 당황한 모양이였다.

—이녀석아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는 네 걱정이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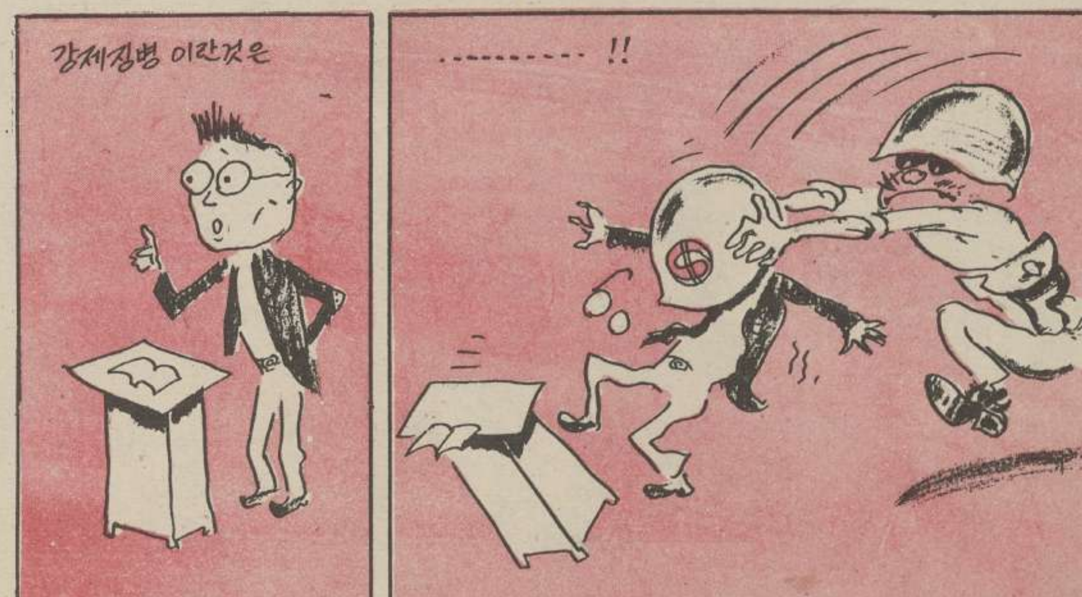
《군의관》이 등을 치며 밀어내는 바람에 김 인수는 문밖으로 밀려 나왔다.

김 인수는 신체 검사에 《합격》이 되여 그날로 《훈련소》에 들어 갔다. 그러나 리 영호는 신체 검사에 《불합격》이 되여 그날 다시 서울로 돌아 왔다. 그는 《포목상의 아들 리 영호》가 아니라 그로 가장한 거리의 부랑자였다. 리 영호의 부친은 돈으로 부랑자와 《군의관》을 매수하여 자기 아들의 병역을 기피하였던 것이다. 이날 론산에서 후송된 《불합격자》는 《리 영호》 외에도 또 몇명이 있었는데 수'법은 《리 영호》의 경우와 동일하였고 그를 조직한 자는 모두가 대 상인이나 큰 뿌로카가 아니면 고관들이였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남조선에서는 례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막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이런 식이다.

리 승만 《정권》은 전신에서 악취와 고름을 내뿜고 있다.

## 《실물 교육》




백 인균 그림

리 승만 괴뢰 병무 당국은 금년내로 무려 7천명에 달하는 각급 학교 교원들을 강제 징집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서종삼 전락기

오 정 삼

충남 당진군 아산면에 사는 김 숙자는 올해 스무살 난 순진한 처녀였다.

그는 열 여덟살에 그곳 녀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잡화상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 근근히 그날 그날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자나 깨나 항상 대학에 갈 마음 뿐이였던 김 숙자는 4월 벚꽃이 만발한 어느날 드디여 집을 뛰여 날 결심을 하였다.

남조선 천지를 휩쓸고 있는 실업자들의 홍수가 아산 거리에도 범람하고 있는 것을 김 숙자는 모르는배 아니였으나 자기만은 서울에 가면 모든 일이 순순히 떼워나갈 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더욱 김 숙자가 서울에 올라갈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밀무역 뿌로카로 한 몫 보고 있었던 당숙을 단단히 믿어서였다.

당숙을 믿고 서울에 뛰여 올라간 김 숙자는 우선 직장을 구한 다음 대학에 다니려고 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취직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더 힘든다는 말은 들어 왔지만 이번엔 자신이 체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하늘처럼 믿었던 당숙은 빠루라고 하는 미국놈을 끼고 나이롱 뿌로카를 하다가 그 놈의 홈통에 빠져 거덜이 나고 있을 때라 사정은 더욱 딱하게 되였다.

서울에 올라 온지 얼마 후 김 숙자에게는 천만 뜻밖에도 일'자리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종로 4 가에 있는 서울 녀자 학관 내에 있는 실 공장에서 실을 켜게 되였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의 요행으로 일주일도 못되여 그 곳에서 밀려 나오게 되였다.

그것은 실 공장에 있던 사람이 부산에서 취직을 하면 김 숙자가 있기로 한 것이 였는데 그만 그 사람이 취직을 못하여 할 수 없이 실직을 하게 되였다.

실직을 당한 김 숙자는 당숙의 집에 있을 처지도 못되여 뜨내기로 사귀운 청계리에 있다는 동무를 찾아가 취직 자리를 구할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때마침 그 동리 사람이 충무로 입구에 있는 문방구점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하여 그 곳을 찾아 갔으나 주인이 인천가고 없었다. 이러는 사이에 며칠이 지나 또 청계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사람의 주선으로 어느 집에 가 있게 되였다.

이를테면 문방구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있기로한 어느 집이란 것이 바로 륜락의 소굴인 서종삼 (서울 종로 3 가의 매음굴을 이렇게 서종삼이라 함) 뒤'골목 봉익동 (72의 5) 집이였다.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두운 김 숙자에게는 이것이 자기 운명의 갈림'길임을 어찌 알았으랴! 문방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든 이 자가 다름 아닌 사기한인줄을 순진한 처녀로서 알 길이 없은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김 숙자가 매음굴로 떠러져 몸부림을 치며 다음과 같이 하소연을 할 때 이 어찌 몸서리가 처지지 않으랴!

《…며칠 동안 그 집(봉익동)에 있으니까 하루는 주인이 밥 값을 내라고 하기에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이 식비를 내 준다고 하였으니 그 사람이 오면 치르겠다고 했드니 안 된다고 하지 않겠서유! 그 집 주인이 제 옷보따리를 전당 잡고 돈을 내면 준다고 하기에 돈을 가질러 집에 갔었서유. 그런데 가 보니 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어 계시고 가게는 벼락세금에 문을 닫고 살림은 말이 아니였어유. 그러니 돈을 얻어 오기는 커냥 도리여 제가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할 형편이므로 그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 온게 잘못이였어유…》

이러한 사기 협잡에 걸려든 김 숙자는 대학의 꿈은 물거품 같이 산산이 깨여지고《서종삼》의 '륜락의 거리에서 한 떨기의 꽃이 무참하게 유린 당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불야불야 서울로 달려 온 그의 어머니는 딸을 매음굴에서 나흘만에 건져 내었으나 이미 김 숙자는 폐인처럼 얼이 빠져 미치고 있었다. 그는 양키부대 위안부로 파주 미군 주둔지로 끌려 가려든 전날 밤에 어머니의 손에 구원을 받았다.

딸을 껴안고 통곡하든 그의 어머니는 가슴이 메여 말을 끊어 가며 다음과 같은 하소연으로서 세상을 저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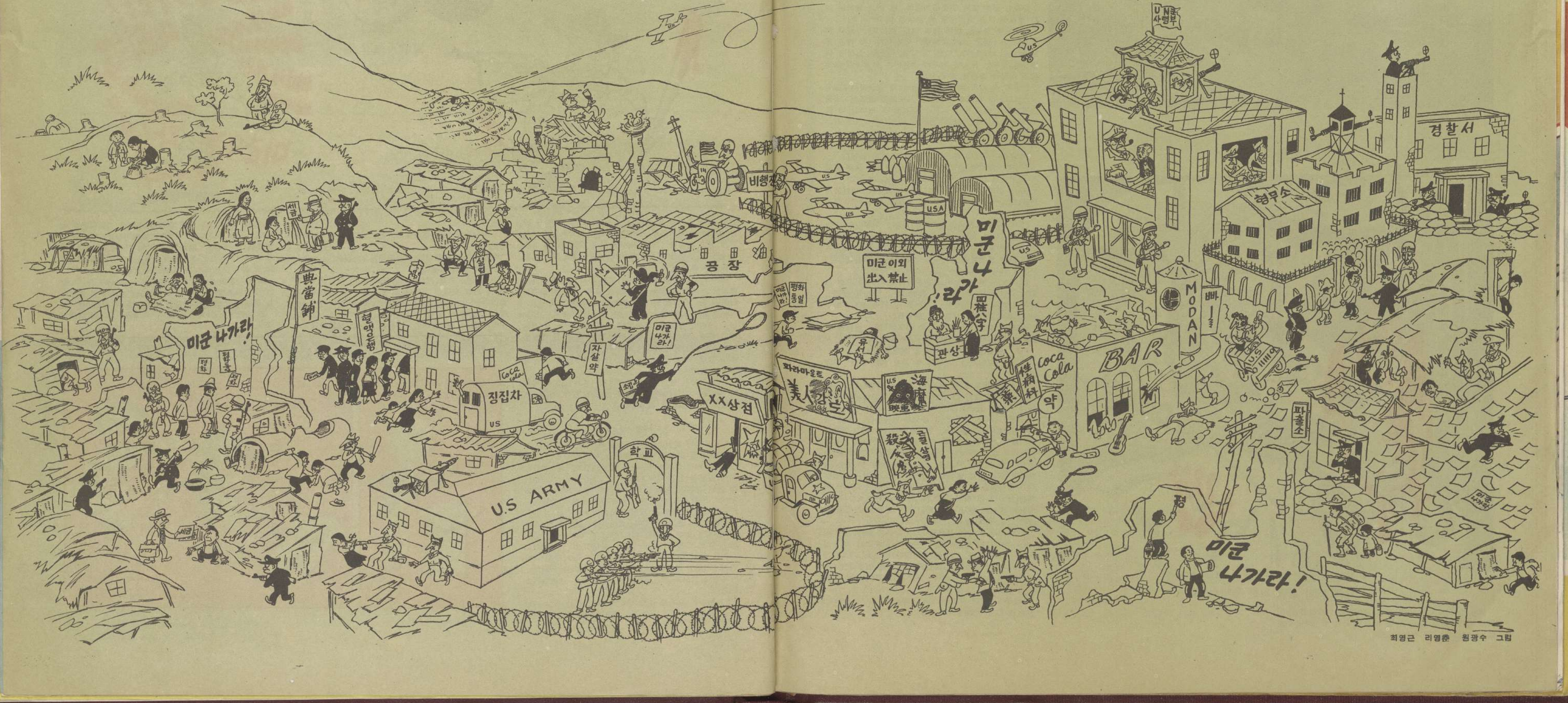
《당숙이 올라 오란다고 하여 공부시키려 서울에 보냈습니다. 한 번 다니려 와서 취직이 되였다고 해서 당숙만 믿고 올려 보냈습니다. 참말로 분합니다. 딸자식을 이렇게 버려 놓았으니! 부모는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이것을 녀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결과에 가서는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딸을 내 놓은 이 어미가 죄스러워서 못견디겠습니다. 더구나 양키부대로 끌어 갈려구 했으니 천하 불한당 놈들인 미군놈들의 소행을 누가 몰라서요!》

그는 가슴을 뜯어가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미군이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리승만 역도가 빚어 놓은 인간 지옥의 참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남조선 사회에서 로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몰고 있는 자가 누구이며 농민들을 정든 고향 땅에서 내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또한 어린 자녀들을 교문에서 내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귀여운 딸 자식을… 부녀들을 륜락의 거리로 내몲게 한자가 누구인가? 이는 다름 아닌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천추만대에 용납 못할 죄행인 것이다. 남조선 사회는 오늘도 민족적 비극이 또한 새로이 버려지고 있을 것이다.

##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




최영근 리영춘 원광수 그림

## 남조선 녀성들을 뒤따르는 짐승들

송 용남 그림

## 《처 단》

—성부와 성자와 유엔군 사령부의 이름으로 너의 살인 죄를 용서하노라

허 능텍 그림

조선 소년을 갖은 만행 끝에 상자속에 밀장하여 유기했던 살인귀들인 미군 3명을 미국 당국은 형식적인 《군법 회의》에서 그냥 석방하였다.

김 문 규

경무대 어득컴컴한 침실 속에서 매일 밤 같이 고된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 당년 83세의 늙은것이 아침 열시 전에 자리에서 일어 난다는 것은 퍽 보기 드문 희귀한 일인데 3월도 다 지나간 31일 아침에 바로 이러한 희귀한 일이 생겼다.

상전 아메리카 합중국의 《주한 대사》 따우링이 경무대를 아침 일찍 찾겠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쇠진한 몸을 침대 우에 일으켜 세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응접실 문을 활짝 열어제끼면서 맨 먼저 들어선 것은 량볼이 개귀 모양으로 축 늘어진 따우링이였다.

따우링의 뒤로는 얼마 전에 대만 행차에서 돌아 온 《재한 유•엔군 사령관》 덱커—가 류별나게 험상 궂은 낯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뒤로는 항상 삽살개 모양으로 까부는 유•피 기자가 이날만은 어울리지 않게 제법 점잖을 빼면서 들어 섰다.

방문객 세 사람 일당이 자리에 앉자 승만이는 《오우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성스러운 사도들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에게 보내 주시니 오늘은 이 얼마나 복 많은 날입니까》 하고 한참 수선을 떨었지만 그의 가슴은 또 무슨 일일까 하는 반 공포와 반 기대 속에 가볍게 떨렸다.

《대통령 각하?!》 맨 먼저 따우링이 입을 열었다.

늙은게 의자의 스프링이나 튕겨 나듯이 몸을 꼿꼿이 세우면서 《예스》 하고 모기 우는 소리를 냈다.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사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권합니다. 각하의 국방군은 곧 전쟁에 참가해야 하겠습니다.》

《오— 전쟁! 전쟁을 일으키랍니까? 북한으로 쳐들어 가는 전쟁, 오—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사도들이 만들어 낸 최대의 예술인 전쟁을, 나는 이날이 오기를 하루 같이 고대했습니다. 아— 하느님 아버지시여, 감사하고 감사합네다.》

《노, 노— 리 승만 박사 진정하십시오. 북한으로 쳐들어 가는 전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 아직 당신께 북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따우링은 왼 손'가락을 쳐들어서 제지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의 국방군 인도네시아 전쟁에 참가해야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어안이 좀 삥삥해졌다.

《아니 인도네시아 전쟁은 장 개석 총통 몫이 아닙네까》

《오케—분명히 그것 장 개석 총통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당신 리 승만 각하에게 인도네시아 전쟁에 몫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일으킨 반란 제대로 되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한 돈 먹여서 반란 시작했는데 반란군 쫓겨만 가고 있습니다. 중부 스마트라 북부 스마트라 반란군 모두 패망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지는 것 당신이나 장 개석이와 통 한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미국이 인도네시아 반란군 추켜 주고 원조해 주고 있다는 게 세상에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국 립장 참으로 딱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 나서 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령리한 투사 누구입니까. 그것 바루 당신 리 승만 각하 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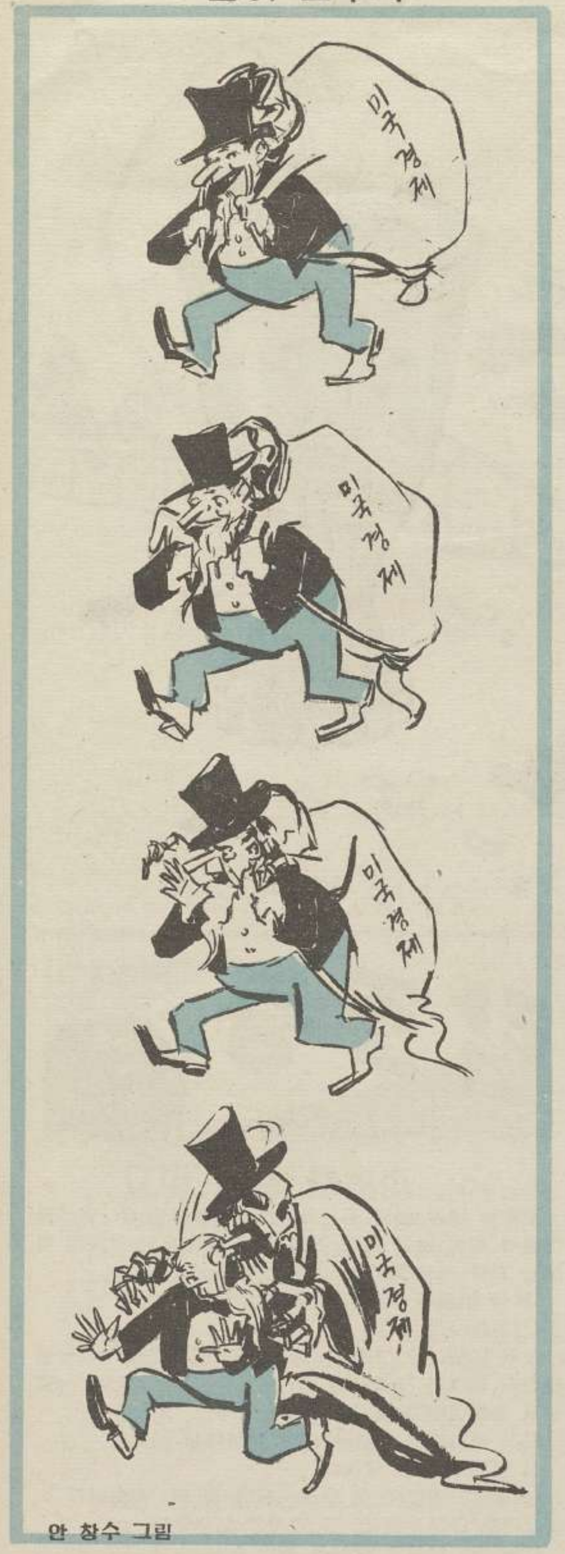
추어 주는 바람에 기운은 다시 솟구쳐 올랐다.

《네 말씀대로 합죠. 워낙 나는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바다 건너 그 먼 곳에 우리 군대 어떻게 보낼까요. 또 언제 떠날지요?》

그의 이 말은 세 사람의 웃음'보를 터뜨렸다. 련신 너털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대통령 각하—》 따우링이 간신히 웃음을 참으면서 입을 열었다.

## 날이 갈수록




안 창수 그림

## 세계 인민의 분노

원 광수 그림

《당신 군대는 인도네시아에 당장 갈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간댔자 결과 뻔합니다. 간다고 소리만 치십시오 크게 세상에 소리만 치시오.》 리 승만의 눈알은 더욱 말똥말똥해졌다.

《대통령 각하 모르겠습니까. 당신 건망증 아주 심합니다. 월남 전쟁 때 당신 남부 월남에 원정군 보내겠다고 큰소리 친것 깜깜히 잊었습니까?》

그때야 리 승만은 알아차렸다. 《예스 예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 좋습니다. 조금도 힘 들지 않습니다. 나 큰 소리 쳐본 경험 많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본을 받아서 내 큰 소리 가장 잘 칩니다. 자 들어 보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늙은게 배를 내밀고 제딴에 위세를 보이면서 의기양양하여 일어 섰다. 턱을 내저으면서 목덜미를 쑥 내 빼더니 삑 삐—ㄱ 소리를 질렀다. 《우리 군대가 인도네시아에 간다…》 낯상이 붉고 프르러지고 숨'소리가 씩씩해지더니 그만 제김에 뒤로 나가 자빠졌다. 그럴 줄 미리 알았던 덱커—가 부축해서 일궈 세웠다. 《각하 큰 소리 아주 독특합니다. 이것 리 승만 박사 특이한 재능, 성격 그리고 취미의 표현입니다. 리 승만 박사 당신의 큰 소리 온 자유 세계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미국 마음 놓고 공개적으로 인도네시아 반란군 원조할 수 있습니다.》

× ×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보실장 오 재경은 줄창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기자들이 어제 벌써 미국의 신문에는 대통령 정식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왜 국내에서는 오늘이야 발표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하는 초조한 생각이였다.

《에라 나도 모를 판인데 내미는 수 밖에 없다. 하여간 미국 신문에 먼저 났으니 이번만은 오보가 아니니 <오보실장>이라는 루명은 또 쓰지 않겠으니 다행이다》 끝내 이런 배짱으로 나섰다.

《인도네시아 반란군을 원조하기 위해 원정군…》 성명을 듣는 기자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봐 오보실장 또 오보야》 누군가 소리쳤다.

《아니야, 이번만은 진짜야 어제 미국 신문에도 났어》 오 재경은 의기 양양해서 대답했다.

리 승만이가 인도네시아에 《원정군》을 보내서 반란군을 돕겠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졌다. 세상에는 웃음'보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 주제에 남의 나라 일까지 간참하겠다는 꼴이 우스워서 우선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 다음에는 과연 이 작자는 전쟁이라면 메뚜기 제'밥에 뛰어 들듯이 뛰여 들기 즐겨하는 전쟁 미치광이라고 하여 비웃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보는 점차 욕지거리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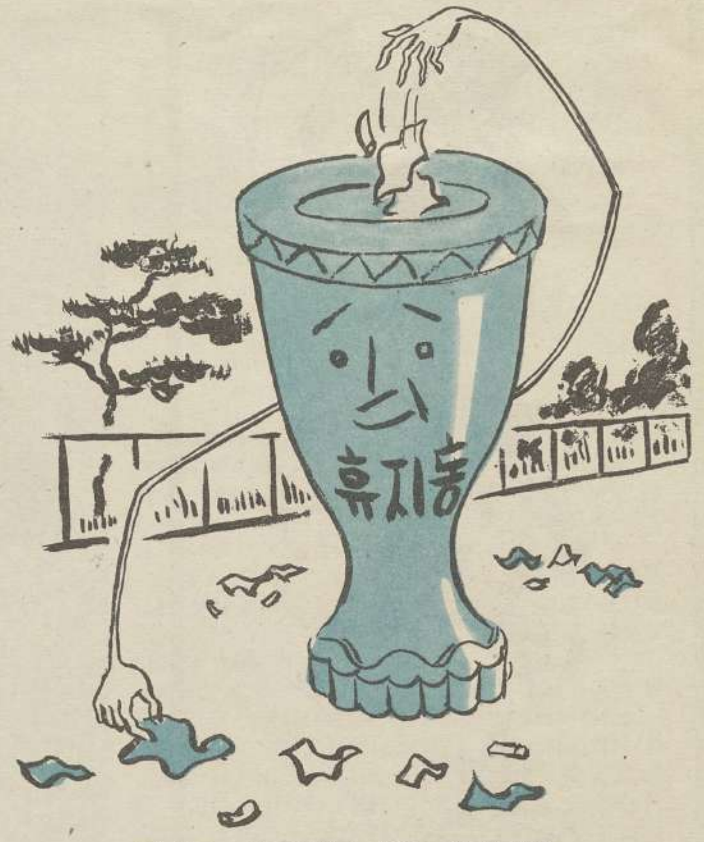
《저놈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못 살게 하겠단 말이야》 하고

#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일하자!

## 담배'재도 양념인가?

일부 료리사들은 비위생적 현상을 아직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휴지통—나에게도 손이 있었으면…

### △ 늘어 가는 오작품

지금 전 공화국 북반부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주요 고리인 절약하여 증산하기 위한 당의 호소 실천을 위하여 들끓고 있다.

그러나 북중 기계 제작소 일부 일'군들은 아직도 이 투쟁을 적극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증산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오작품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심혈을 기우리는 결과 나날이 오작품어 줄어 가는데 북중 기계 제작소 주물에서는 나날이 오작품이 늘어 간다.

오작품이 많아지니 더 증산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주물 오작들을 다시 녹일라니 로력 랑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그 때문에 1년 동안 쓸 콕쓰를 4 개월에 다 써 버렸다.

절약하기 위하여 머리를 짜 창의 고안도 하고 있는데 15리 곁에 있는 락원 기계 제작소에서 고안해 놓은 경험이야 왜 도입하지 못하는가?

락원 기계 제작소에서는 열풍 장치를 도입하고 설비를 일부 개조하며 작업 조직을 합리화하는 등 선진 기술과 창안을 도입하여 주물 한 톤 생산에서 콕쓰 소비 기준을 186 키로로 감소시키고 있는데 북중 기계 제작소에서는 이런 좋은 경험을 도입하지 않고 주물 한 톤 생산하는데 콕쓰를 345 키로씩 소비하면서 많은 콕쓰를 랑비하고 있다.

### △ 예비를 안 찾는다

모든 생산에서 절약—그것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설계는 절약과 증산에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그러나 기계 공업성 설계 연구소 일'군들은 설계에서 절약과 예비를 찾지 못하고 많은 주강을 랑비하고 있다.

몇 가지 례를 들어 보면 이들이 설계하여 생산하고 있는 100 마력 짜리 권양기는 무게를 1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수다한 철 강재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반하기에도 쉬울 것이다.

그리고 부레키 크랏샤도 외국 사람의 키에 준한 문헌 그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공장들에서 우리 로동자들에게는 필요 이상 높은 기계가 생산되면서 매대당 200 키로의 주강을 랑비하고 있다.

주강 한 키로를 생산하는데 채광에서부터 제철 운반 용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로력과 자금과 자재가 소비되는가를 이 곳 설계 일'군들은 모르는지?

아마도 절약이나 증산은 생산 기업소에서만 할 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 △ 과제를 둘러 싸고

군에서 내려 보낸 축산과 양잠 과제를 받은 연안군 해월리 광범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은 의아한 얼굴로 거듭 생산 과제를 읽어 보았다.

《이게 분명히 우리 조합에 온 거요?》

《그렇습니다.》

관리 위원장은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 다시 겉봉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으나 거기에는 분명히 광범 농업 협동 조합이라고 써 있다.

관리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그 과제를 보였다.

한 위원이 보고 말했다.

《이건 딴 조합에 올 것이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이 그 의견을 부정했다.

《아니야, 분명히 겉봉에 광범 농업 협동 조합이라고 썼는데, 군에서 그렇게야 일을 떨떨히 하겠소.》

《아니 그건 다른 조합의 걸 바꿔 넣을 수도 있지, 그렇잖으면 뽕나무 밭이 한 평도 없는 조합에 양잠 과제를 내려 보냈겠나? 혹 피마주 누에라면 몰라도…》

이 과제가 우리 조합에 내려 온 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관리 위원들이 옥신각신하는데 흥림 농업 협동 조합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서 그 조합에서도 담배 적지가 많은 데도 담배 생산 과제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 과제가 분명히 우리 조합에 온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군에선 조합들의 실정을 모르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 △ 지도는 했는데

황해남도 배천군 인민 위원회에서 1957년 3월에 협동 조합들에 지도를 나갔다.

지도 그루빠들은 이것 저것 많은 것을 검열하고 관리 일'군들과 담화도 했으며 문건들도 뒤져 보았다.

(이제는 우리 조합 일이 잘 돼 나가겠지…)

조합원들은 모두 군에서 집중 지도를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으며, 관리 일'군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합을 더 잘 지도하게 되리란 기쁨과 기대를 가졌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일을 잘 못했다고 지적은 받겠지만 조합 지도를 개선할 옳은 방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조합의 형편과 관리 일'군들의 일하는 방법을 숨김 없이 이야기 했다.

그런데 지도원들은 조합 정형을 검열하다가 총화도 하지 않고 인민 회의가 바쁘다고 하면서 중도에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가지 분야에 걸쳐 지도 검열을 받았지만 관리 위원장은 머리만 띵 할뿐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물었다.

《위원장, 동무 우리가 무엇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나도 알 수 없어 동무나 아는가 물어 보려던 참이오.》

### △ 찾아는 안 보고

연안군 청화리 송봉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언제나 일'손이 바쁘다.

더욱이 모내기 때는 관리 위원장은 노력을 이리저리 뜯어 맞추노라고 쩔쩔 맸다.

《조합원이 총동원 되여야겠는데 모두 아이 어머니니…》

관리 위원장은 이렇게 투덜거리며 뒤통수를 벅벅 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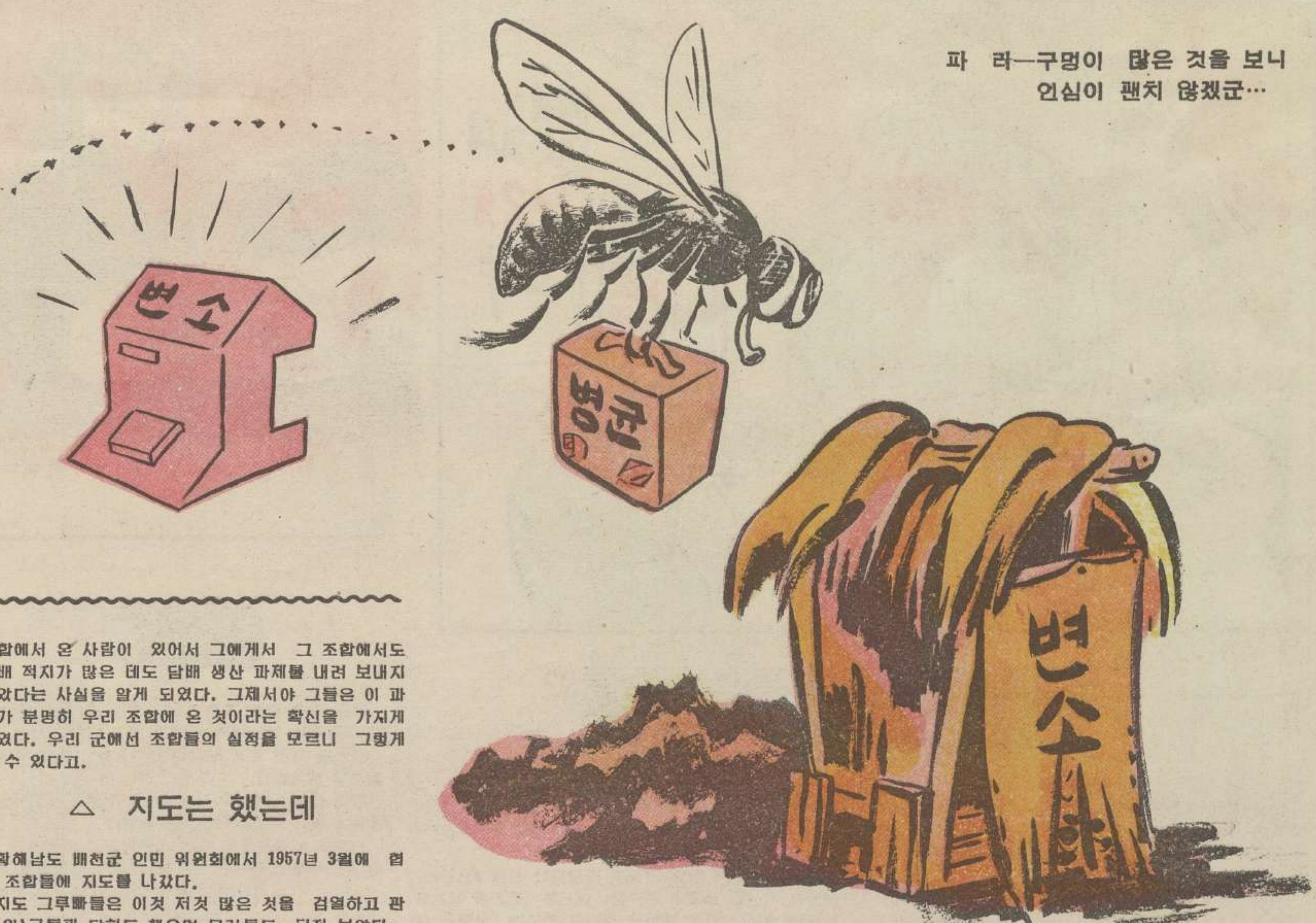
그러나 관리 위원장님! 머리를 긁지만 말고 짜 보시라. 농촌 탁아소를 설치하는데 무슨 큰 설비와 노력이 필요한가, 여름철에는 일 못할 늙은이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을 보아주게 하면 수물 세명이나 되는 노력이 생길 것이 아닌가? 리 운 봉

## 옥순이의 모범

원 광수 그림



최 영근 그림




파 리—구멍이 많은 것을 보니 인심이 괜치 않겠군…

## 어느 한 농촌 건달'군의 환상

송 용남 그림

## 증산은 하였으나

조 명식 그림

## 강사 동무 강의를 시작하신다

홍 종호 그림

## 자주 손질 하는것

소비 협동 조합 황해남도 장연군 박산 상점의 어둑컴컴한 이 상점 매대 앞 중간 기둥에 걸려 있는 《인민 신소책》에 2 개월간의 신소와 그의 《처리》 정형을 살펴 보자.

금년 초에 로동자 김 보현은 상점에 질서가 없으며 청소가 되지 않았고 너저분히 널려 있기 때문에 방화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며, 1 주일 후에 하 영원 조합원은 상점과 매대와 진렬장에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을 살 기분이 나지 않으며 상점 일'군들이 농민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썼다. 이 겸손한 목소리들은 그때마다 간단하게 《처리》 되군하였다.

그 후 지난 1월 30일에 김 영돈 조합원은 《백고무신에 먼지가 쌓여서 검은 고무신과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상점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쓰고 있으며 그 후 고 병국 동무는 상점에 일용품이 품절되군 한다는 사연을 썼다. 물론 이 신소들도 그 때마다 상점 책임자 리 수길 동무의 재치 있는 솜씨에 의하여 간단하게 《처리》되였다.

그 때로부터 1 개월 이상이 지났으나 상점 사업에는 하등의 개선도 없으며 최근에 와서는 도리여 상점의 개점과 폐점 시간의 제정된 제도가 없으며 판매원 한 정영 동무에 의하여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으며 상점을 찾아 오는 사람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상점 책임자 리 수길 동무는 이렇게 된 상점을 개선할 데 대하여는 하등의 연구와 대책도 없다.

이 상점에서 먼지가 자주 털리는 것은 하나 뿐인듯 싶다. 《인민 신소책》에는 고객들의 손이 자주 가군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황남도 장연군 려산 농업 협동 조합
서 병환

## 작업 조직은 끝났다

허 능택 그림

손이 적어 걱정 　 손이 많아 걱정

## 질 좋은 된장 인건 사실인데

지금 소비 협동 조합 상점들에는 질 좋은 된장이 많이 공급되여 인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상점에서 된장을 사 간 사람들은 얼굴을 찌프린다.

질이 나쁜 된장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된장 냄새가 아닌 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된장을 도라무통에 넣어서 운반했기 때문이고 게다가 도라무통을 깨끗이 씻지도 않았기 때문이였다.

평북 룡천군 신암리 조합원
조 창 원

## 언제나 팔겠니?

신원군 신원읍 소비 협동 조합 상점으로 카바이트를 사러 갔던 한 로인은 세번째나 헛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였다.

첫날에는 도라무통을 뜯지 않았으니까 못 팔겠다 하여 그냥 돌아 갔고

둘째번에는 깨뜨린 게 없다 하여 돌아 갔고

오늘은 판매원이 어덴가 가서 못 판다 하여 그냥 돌아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런 사정을 듣고 어느 아주머니는 자기 경험을 말했다.

《말씀 마슈. 이제 왔더니 카바이트도 있고 판매원도 있는 데 저울이 없다고 팔지 않습니다.》

신원읍 곽 정복

## 독자들에게

위생 문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에 따라 우리 활살사에서는 위생 문화 사업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 작품을 게재코저 하오나 만화, 만문, 펠레톤을 널리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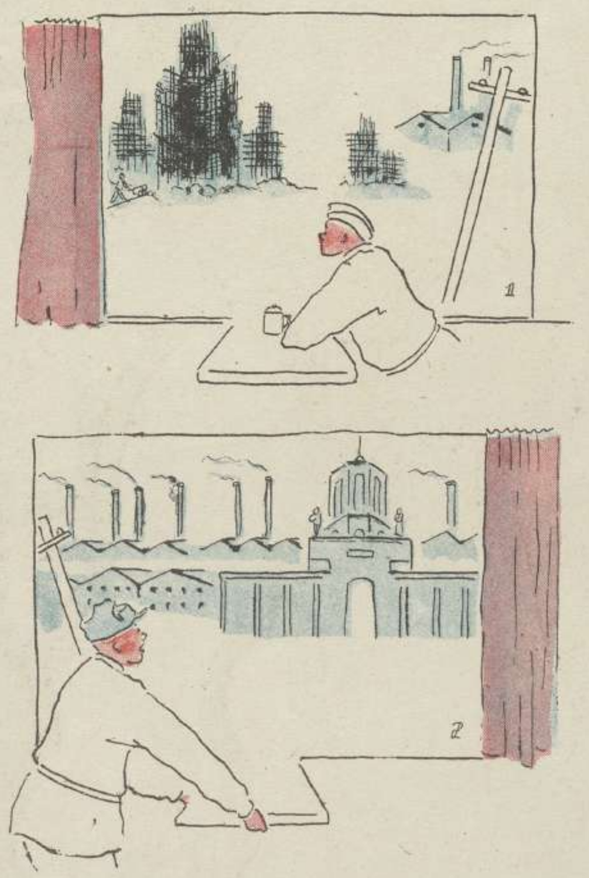


## 독자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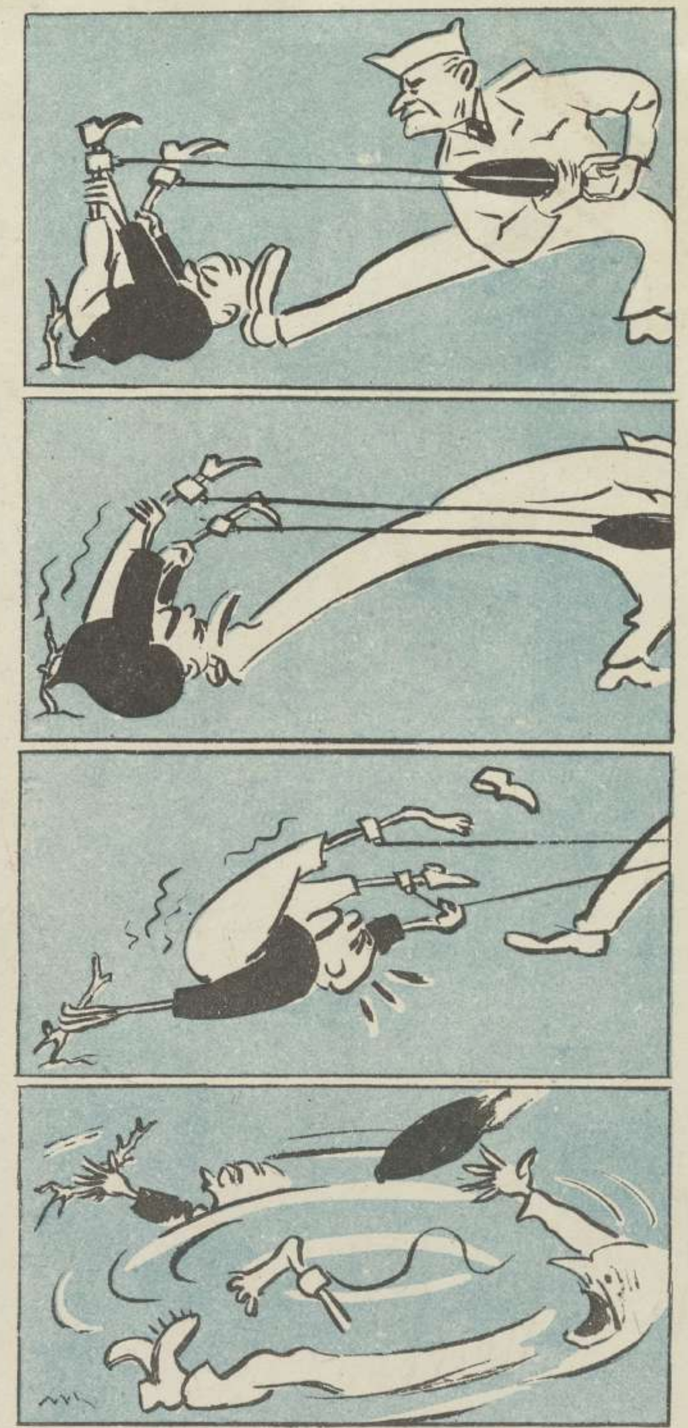
## 부부간의 이모 저모

평북도 구성군 구성 광산 기계 공장
검사부 안 종현 그림

## 차에서 본 평양


지원군 욱상 그림

## 당연한 결과


송 시 엽 그림

## 수도 물 랑비에서 두가지 현상

평양 의암동 박 채욱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6. 10 7—74171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6. 15 값(50원)

# 생지옥 남조선

화탕 지옥

리 승만—무죄올시다!

도산 지옥

발설 지옥

절대 지옥

박 승히 그림